

- **2026 년 9 월 속회**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새 204/통 379)

3. **시작하는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 1)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 2) 속장님께서서는 속회에서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해주세요.

5. **성경읽기: 마가복음 9:42 - 50**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6. **본문의 내용**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주제, 실족하게 함에 대한 경고(42 절), 죄를 대하는 과감한 태도(43-48 절), 그리고 화목과 소금의 비유(49-50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2 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의 무서움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영적 리더십의 타락과 무책임함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43 절부터 48 절까지 등장하는 손, 발, 눈을 찌어내거나 빼 버리라는 비유는 문자 그대로의 신체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는 데 있어 타협 없는 단호함과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문학에서 종종 사용되던 과장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익숙한 것이라도 죄의 도구라면 과감히 도려내야 함을 역설하십니다. 지옥을 묘사할 때 사용된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사야 66 장 24 절의 종말론적 심판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실존함을 일깨워 줍니다.

49 절과 50 절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시련과 정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고 맛을 내듯,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보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 **7. 나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만드는 과감히 끊어 내야 할 죄의 습관이나 유혹은 무엇이 있나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 **8. 합심기도**

- 1)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내용을 위해
- 2) 속원들을 위해, 특히 속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픈 속원을 위해
- 3) 아콜라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 4) 우리 속회가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 **9. 주기도문**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속회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통일 379)

# 주의 말씀 듣고서

204

성경

민보아(F. S. Miller), 1905

보통으로

우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 7:25)

MORE TO FOLLOW: 7.6.7.6.D.REF.  
P. P. Bliss(1838-1876)

1.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 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담고  
2.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담고  
3.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 쳐도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 칠 때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상을 줄 때

후렴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세운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쉬운 기타코드(capo=1st) E<sup>b</sup>→D B<sup>b</sup>→A A<sup>b</sup>→G